

전란 후의 제주문학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전란 후 제주문학의 양상
 - 1) 『제주문화』
 - 2) 『비자림』
 - 3) 『문주란』
 - 4) 『시작업』
3. 맺음말

1. 머리말

조동일에 의하면, 문학연구의 단위는 ①상위단위의 문학(상위문학)인 문명권문학·세계문학, ②중위단위의 문학(중위문학)인 민족국가문학, ③하위단위의 문학(하위문학)인 소수민족문학·지역문학·특수집단문학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그 하위의 지역공동체, 그 상위의 국제사회 사이에 있는 중간단계의 조직체임을 인정해야 할 시점인 이상, 문학에서도 민족국가문학만이 다른 둘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위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위문학의 전모를 밝히는 데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상위문학과 하위문학에 대한 관심에 소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위문학으로 관심을 돌리는 작업은 매우 늦은 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하위문학은 지역문학이 중요하다. 소수민족이나 특수집단이 독자적인 문학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동질적인 민족이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삶을 각기 다르게 가꾸어왔기 때문이다.)¹⁾

이제 지역문학 연구와 지역문학사 서술은 이제 문학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호사취미나 연구의 여기(餘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보편적 논리를 갖는 학문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문학에 대한 관심은 구비문학의 조사연구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고전문학(지금까지는 한문학 중심임)과 현대문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문학 연구의 한 방향은 궁극적으로 제주문학통사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조만간 제주문학통사가 서술될 길 기대하며 작성한, '단면사'²⁾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루려는 사항은 '4·3' 후의 제주문학이다. 즉 한라산 금족령(禁足令) 해제에 따라 공식적으로 4·3이 마감된 1954년 9월 이후부터 1960년 4·19 이전까지 전개된 제주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직전 시기를 '전란기(戰亂期)'로 본다면, 이 시기는 '전란 후'로 규정할 수 있다.

전란 후의 제주문학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제주문화』·『비자림』·『문주란』·『시작업』 등의 간행물을 중심

- 1) 조동일, 『지방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6쪽. 조동일은 이 저서에서 '지방문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역문학'으로 지칭한다.
- 2) 조동일은 "통사 가운데 어느 한 면을 잘라내서 고찰한 것을 '단면사'"라고 하였다. 위의 책, 201쪽.
- 3) 흔히 '전후(戰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전란 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문학에서 '전후문학'이 한국전쟁 후(1953년 7월 이후)에 진행된 문학을 일컫는 일반적인 경향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와 제주도의 사정은 다른 점이 없지 않았고, 한국전쟁과 4·3의 종료 시점도 1년여의 차이가 있다.

으로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주로 잡지·동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역량을 크게 발휘한 제주의 작가가 거의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주와 연고가 있는 사람 가운데 등단 작가는 최현식(1957년 등단)·김종원·김대현·양중해(이상 1959년 등단)뿐이며, 등단 절차 없이 작품을 낸 경우도 강금중(1946년 이후 작품집 3권을 낸 후 1963년 등단함) 정도로,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대체로 1960년대 이후에 전개되었다.⁴⁾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 시기 제주문학만을 가지고 주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글에 관련된 논의는 김영화·김병택·고시홍 등에 의해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화의 연구는 「제주문학 80년 - 1915~1994」·「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1950년대의 제주문학」⁵⁾ 등이 있다. 「제주문학 80년」은 김문준의 「농부가」가 발표된 1915년부터 1994년까지 전개된 제주문학의 흐름을 세 시기로 나누어 개괄한 글인데, ‘동인 활동기’(1946~1964)로 설정한 부분이 이 글과 관련된다. 김병택의 「오현문학사(Ⅰ)」⁶⁾에서는 ‘제주문단의 형성과 오현인들’이라는 절에서 이 시기 제주문단을 개괄하는 한편 ‘1950·1960년대’에서 김종원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 있다. 고시홍의 「문학」⁷⁾은 제주문학의 흐름과 작가·자료 등을 정리한 글이다.

필자는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과 「한국전쟁기 제주 문단과 문학」⁸⁾에서 「신생」·「신문화」·「흑산호」를 중심으로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전개된 제주문학의 양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전의 두 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 셈이다.

4) 최현식·김종원·양중해·강금중·김대현의 문학세계에 관해서는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 - 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00)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고 있다.

5) 「제주문학 80년」은 『변방인의 세계』에 실려 있으며,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은 『제주문화연구』(제주문화, 1993), 「1950년대의 제주문학」은 『탐라문화』 제14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에 각각 발표되었다.

6) 김병택, 「오현문학사(Ⅰ)」, 『굴림문학』 제11호(굴림문학회, 2002).

7) 『제주도지』 제3권(제주도, 1993).

8) 두 편 모두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에 수록되었다.

2. 전란 후 제주문학의 양상

4·3이 시작된 이후 한라산 산간지대는 무장대들의 아지트로 민간인들의 입산이 통제되고 있었다. 그런데 1954년 8월말 부임한 신상묵 제주도 경찰국장이 1954년 9월 21일자로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함으로써 한라산이 전면 개방되었다.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던 마을성곽 보초 임무도 철폐되었다.⁹⁾ 이로써 1947년 3·1절 기념식 때의 발포사건으로 촉발된 4·3은 7년 7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갖가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즈음 제주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주목할 점은 고향을 극복하는 여건 조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치·행정적인 면을 보면 1954년 5월에 제3대 민의원선거가 있었고, 1956년에는 제2차 지방의원선거와 시·읍·면장선거가 실시되었다.¹⁰⁾ 1955년 9월에는 제주읍이 시로 승격되었고, 1956년 7월에는 서귀·대정·한림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¹¹⁾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목포, 제주-부산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증가하였고, 1949년 이후 간헐적으로 개설되던 국내 항공노선이 1955년 1월부터 제주-부산, 제주-서울 구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항하기 시작했다.¹²⁾ 통신 면에서는 1953년 10월에는 제주에서도 전보내용을 송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므로써 국제간의 전신회선이 처음으로 개통되었으며, 1958년 9월에 제주전신전화국이 개국하였다.¹³⁾ 문화 부문에서는 1956년 10월 ‘문화인 전체의 권익 옹호와 민족통일의 과업완수를 위한 반공문화전선을 형성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문총제주지부가 결성되어 기관지를 간행하고 종합예술제를 개최하

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56쪽.

10) 『제주도지』 제2권(제주도, 1993), 153~163쪽.

11) 위의 책, 335쪽.

12) 위의 책, 1128쪽.

13) 위의 책, 1068~1073쪽.

였다.¹⁴⁾ 1953년 12월에 제주극장, 1955년 모슬포극장, 1956년 중앙극장이 개관함으로써 도민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도 되었다.¹⁵⁾ 교육 부문에서는 많은 초·중·고등학교들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비로소 대학이 생겼다. 1957년 11월에는 제주도립도서관이 개관하였다.

특히 대학교육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문학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다. 1952년 개교한 제주초급대학이 1954년 4월에 4년제 도립제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제주초급대학은 1954년 3월에 첫 졸업생을 내었고, 도립제주대학은 1957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는데, 제주초급대학 시절부터 국문학과와 영문학과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은 제주문학의 저변확대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 피난차 제주에 머무르던 계몽묵·장수철 등의 문인들은 거의 떠나갔지만 제주대학이 문학 관련 학과를 두고 개교하면서 김영삼·문덕수 등의 문인들이 문학 강의를 위해 제주를 찾아오게 되었다. 1955년에는 얼마간 제주에 머무르고 있던 박목월 시인이 제주대학 국문학과에 출강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기에 피난문인들을 중심으로 불씨가 지펴졌던 문학의 열기는 당시의 문학청년들과 대학 강의를 위해 제주에 온 문인들에 의해 이어지는 가운데 차근차근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내도한 문인들은 제주의 문학도들과 함께 문예단체 기관지, 동인지 등을 편찬하면서 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했는데, 『제주문화』·『비자림』·『문주란』·『시작업』 등이 그런 와중에 출간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그 기관지나 동인지를 통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중앙문단에 등단하는 이들이 나왔다.

1) 『제주문화』

『제주문화(濟州文化)』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¹⁶⁾의 기관지로

14) 『제주도지』 제3권, 206~207쪽.

15) 『오현고 50년사(Ⅰ)』(오현고등학교·오현고총동창회, 2002), 699~701쪽.

16)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는 1956년 10월 23일 신성여중 강당에서 결성되어 그 해 11월 12일 중앙문총의 승인을 받았다. 「보고-제주문화체를 중심으로」, 『제주문화』 제1집(1957), 170쪽 참조.

1957년 6월 20일 발행되었다. 제주도 최초의 문화단체 기관지였으나, 창간호 이후 그 작업이 이어지지 않아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고만 잡지다. 「창간 취지」에서 김영삼 지부장은 “제주도의 문화소재는 귀중한 몫으로 보아 어느 지방보다 뒤떨어진다고보다 사적으로도, 현재의 현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전국 문화계에 맨 첫 번으로 손꼽히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제주의 문화자원을 공을 드리어 고이고이 다듬어서 수록하여 온 천하에 알려주고 천만년을 기리기리 남기어줄 지지가 없어서 (...) 유감”이기에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에서는 단연코 난관을 극복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와 책임을 깨달아 이 『제주문화』지를 간행”¹⁷⁾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김영삼 「창간 취지」, 길성운 「제주문화 창간을 축하함」

시: 김용호 「어느 섬에서」, 이인석¹⁸⁾ 「폐허에 서서」, 유정 「최후의 꽃」, 홍정표 「용중석」, 양중해 「만종」, 강통원 「Phoenix」

소설: 조명철 「말복 날」

어린이를 위한 노래 이야기: 이봉준 「눈 나리는 밤」¹⁹⁾

수필: 박용후 「제주풍속 · 기타」, 김용수 「무제」, 현화진 「『오돌또기』에 대한 소고」, 김성태 「문화 노오트」

논문: 장주근 「제주도 여신 고」, 김영돈 「제주방언의 음운 개관」, 현용준 「『흥』 삼요소에 대하여」

보고: 김택하 「제주문화제를 중심으로」

민요: 「오돌또기」, 「제주도민요선」

가곡: 김영삼 시/ 김동진 곡 「오월의 순풍」

「전국문총제주지부세칙」, 「전국문총제주지부 임원 및 회원 명단」, 「편집 후기」

17) 위의 책, 14쪽.

18) 이인석(李仁石)은 한동안 제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시집 『사랑』(청춘사, 1955)에는 「해녀의 노래」·「제주해협」·「제주」·「대한」·「祭 날」·「비바리」·「다시 품속에」 등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이 실려 있다.

19)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봉준의 「눈 나리는 밤」을 소설로 보기도 했으나 이는 잘못이다. 아마 차례에 ‘창작’이라고 명기된 것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래동화(설화) 따위를 노랫말로 만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언어·신화·민요·풍속 등에 대한 글들과 함께 문학작품이 적잖이 실려 있다. 문학만이 아니라 문총제주지부의 기관지인데도 문학작품을 비교적 많이 수록한 것은 “당시의 회원들 중에 문학분과의 회원 숫자가 65명이어서 다른 분야를 압도했고 (...)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문인이었기 때문”²⁰⁾임은 물론이다. 문학작품의 양상들을 보면, 전쟁의 상흔과 관련이 있거나(이인석 「폐허에 서서」, 유정 「최후의 꽃」, 조명철 「말복날」), 제주적인 것을 소재로 삼은 작품(김용호 「어느 섬에서」, 홍정표 「옹중석」)이 주류를 이룬다. 양중해와 강통원의 시는 사회적 상황이나 지역 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길은 항시 열려져 있었고/ 연방 닫혀지지만 했다// 옛날, 저버림 속에 그 누구는/ 헛된 세월을 여기에서 보냈다는데// 바람도, 물결도 그 날과 같은 오늘/ 나도 헛되이 이 섬에서 그저 呼吸만 하랴// -물려오는 물결에 너가 있고/ -되돌아오는 물결에도 너가 있어// 오가는 물결에 나도 흘러 가는가 / 어디론가 흘러 가야 하는가/ 가없는 물벌판.....// 나에겐 기적이 없어/ 물우를 더벅 더벅 걸어 갈, 그런 기적이 없어// 어딘가 흘러가다/ 물거품인 양 사라질 나의 終點// 섬/ 너도 물벌판에 찍힌 하나의/ 點//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들이 보람이나// 푸른 思索를 깊숙히 간직하고/ 한 개의 진주를 위하여/ 이 點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 김용호 「어느 섬에서」²¹⁾

망망대해에 접처럼 찍혀진 채로 존재하는 섬의 운명을 차분히 그려내고 있다. 과거 절해고도에 밀려왔던 유배인과 같은 이들의 우울한 정황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가없는 물벌판’으로 걸어나갈 것을 꿈꾼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한 개의 진주’를 추구하는 섬에서의 삶에 ‘보람’을 싣고 있

20) 김병택, 앞의 글, 119쪽.

21) 이 시는 이봉준·송석범 편저 『제주도 관광』(정연사, 1965)의 82~84쪽과, 『움직이는 제주도』(삼남연감발행사, 1966), 52쪽에 재수록되었다. 김용호는 이봉준 시집 『도시의 행렬』(정연사, 1965)의 「서(序)」를 썼는데 ‘제주도의 나날’, ‘제주도의 추억’ 등의 문구로 보아 적잖은 기간 동안 제주에 머물렀던 것 같다. 이봉준의 『도시의 행렬』에는 「해녀와 노래」, 「해녀」, 「돌하르방」 등이 실려 있다.

다. 화자의 막연한 희망이 나타나는 후반부가 작위적인 느낌이 없지 않으나, 섬의 한계와 가능성, 섬사람들의 운명적 삶의 방식을 나름대로 잘 형상화한 작품으로 보인다.

白雲이 쉬어 넘는/ 먼 山脈과 더불어 千年// 壽/ 富/ 貴/ 康寧과 考終命
 을 祝願함인가/ 그리고/ 惡鬼를 막아내고/ 邪神을 물리침이런가// 아니면/
 굳은 입을 닫고/ 不動 默默 非情/ 깨끗이 譴念함이런가// 萬里城主의 슬픈
 使者는/ 不老草를 찾아 神山에 해 저물고/ 人生七十古來稀라 읊던 詩人도
 아드막히 갔는데// 삶의 眞理란 多彩로운 苦惱이런가/ 삶의 過程이란 時空
 의 夜叉이런가// 사람아 그대의 새로운 '일'을 깨우쳐/ 우러러 보라 맑은
 하늘 아득히/ 和平하게 속삭이는 별들을/ 굽어보라 淸淨한 池당에/ 平和하
 게 깃드리는 송사리들을

- 홍정표 「웅중석」

들하르방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의 들하르방은 특정의 지역성과는 별다른 관련을 맺고 있지 못하다. 말하자면 제주도의 구체적인 역사나 현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장수와 부귀를 운위하면서 중국의 진시황과 두보를 떠올리는 데서 보듯이, 다분히 관념적인 사유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명철의 「말복날」은 승필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후(한국전쟁 후)의 현실을 드러낸 단편소설이다. 매일시장 채소가게에서 부식을 팔며 살림을 책임지는 아내와 어린 아이 하나가 그의 가족이다. 전쟁터에서 포탄 파편에 왼쪽 눈을 잃은 승필이는 삼복의 무더위에도 집안에만 틀어박혀 파리·모기 따위와 씨름하다가 외출할 생각을 한다. 허나 군복밖에 없는 그는 그 꼴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배급쌀 팔아서라도 여름옷을 해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내는 군복도 과하다며 오히려 아이도 제대로 못 본다고 핀잔이다. 승필이는 자기가 전쟁터에서 눈을 잃은 대가로 배급을 받고 있는데 옷 하나 해 입지 못해서 되겠냐고 소리치지만 이미 아내는 나가버린 뒤였다. 그는 혹시 아내에게 탄 서방이 생길까 아닐까 의심한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밥상을 들이자 그는 돈을 좀 달

라고 한다. 아내가 순순히 준 돈을 받아 외출한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 그러던 그는 어느새 자신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마실 맥주와 아이 줄 과자를 사 갖고 귀가했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내가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희망과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혼자 맥주를 벌컥벌컥 마셔대었다. 소설적 기법 면에서 미숙함이 엿보이긴 하지만, 상이군인의 궁핍한 처지와 생활을 포착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문충제주지부는 '제주문화제'를 1956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주최하였는데, 『제주문화』 뒷 부분에 행사를 결산하는 글을 실고 있다. 이때 문화제의 일환으로 열린 문예작품 현상모집에서 문충성(당시 오현고)·송상일(제주북교)이 시 부문에서, 현기영(오현중)이 산문 부문에서 특별상(최고상)을 수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²²⁾ 이들은 모두 1970년대에 등단해 활발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문단에서 주목받는 중견문인이 되었다.

『제주문화』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지 못한 것은 물론 문충제주지부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문충제주지부는 그 창립을 주도하고 지부장을 맡았던 김영삼 시인이 제주를 떠나게 되면서 조직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김영삼 시인은 1956년 4월부터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듬해 10월 육지부로 직장을 옮겼던 것이다. 물론 문충이 주최하는 제주문화제는 1958년의 3회 대회까지 개최되었지만 기관지 『제주문화』는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제주문화』의 발간을 김영삼 시인이 주도했고 그가 떠나면서 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지 간행이 특정인의 행보에 따라 좌우되었음은 아직 제주도의 문화예술 기반이 미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은 4·3의 피해와 무관할 수 없다.

22) 『제주문화』 173쪽 참조.

2) 『비자림』

『비자림(榧子林)』은 1958년 6월 9일 창간호(제1집)를 낸 시 동인지로서, 같은 해 9월 제2집까지 간행되었다. 제1집에 문덕수의 「내일」, 양중해의 「구름」, 강통원의 「구고습상(舊稿拾賞)」, 강시택의 「바위」·「정야(靜夜)」, 김종훈의 「한라산」·「꽃망울 맺는 밤」²³⁾ 등 7편이 발표되었고, 제2집에는 유치환의 「광음」²⁴⁾, 문덕수의 「침묵(5)」, 양중해의 「천상(天像)」, 강통원의 「입맞춤」, 강시택의 「새벽에」, 김종훈의 「메아리」 등 6편의 시가 게재되었다. 『비자림』 동인은 문덕수·양중해·강통원·강시택·김종훈 등 다섯 사람이었는데, 이 동인의 성격은 제1집 「발문」에서 확인된다.

濟州島에도 무엇 하나가 있어야겠다. 이러한 말은 우리도 항시 중얼거렸고, 남들도 그랬다. 우리는 이제 『비자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來日의 蒼蒼茂盛을 意慾할 뿐이다.

『비자림』은 年前에 象牙塔 黃錫禹 先生이 三姓祠 老松 그늘을 거닐면서 命名하신 이름이다. 詩壇의 先輩와 믿음직한 新人들이 濟州를 中心으로 해서 일을 하자고 했다. 그 후 黃先生은 上京하시고 計劃은 뜻대로 안 되었으나 濟大 國語國文學會 內 몇몇 젊은 시 學徒와 더불어 于先 『비자림』 第一輯을 내놓게 되었다.²⁵⁾

동인 명명은 황석우가 했다는 점, 시단의 선배와 신인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자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는 점, 제주대 국문학과²⁶⁾를 중

- 23) 김종훈의 「꽃망울 맺는 밤」은 이후 1959년 『현대문학』 7월호에 초회추천된 작품이다.
- 24) 「후기」에 “이번 호에는 靑馬 先生님의 玉稿를 卷頭에 실게 되어 우리들의 기쁨과 무게를 더 하게 되었다. 이 외로운 곳까지 뻗혀 주시는 따뜻한 손길이다.”(46쪽)라고 언급되어 있다. 유치환의 작품이 『비자림』 제2집에 게재된 데 대해 김영화는 “그와 가까웠던 문덕수의 청에 의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변방인의 세계』, 23쪽)고 했다.
- 25) 『비자림』 제1집(1958), 24쪽.
- 26) 「발문」에 명시된 ‘제대 국어국문학회’란 제주대 국문학과에서 1955년 7월 13일 결성한 학생 중심의 학회를 말한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0년(1952~2002)』(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34쪽.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덕수는 당시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²⁷⁾ 양중해는 동문이고, 김종훈과 강시택은 재학생이었다. 영문학과를 졸업한 강통원은 예외지만,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교수·졸업생·재학생이 어울려 동인 활동을 했던 것이다.²⁸⁾ 이 가운데 제1집에 실린 김종훈의 「한라산」과 제2집에 실린 문덕수의 「침묵·5」를 살펴보자.

우렐어/ 저 하늘 넘어로 숨어간 太初의 화려한 꿈들이/ 미처 爛漫하기도 전에/ 깡그라이 말라버린 千年의 嗚咽을/ 이제는/ 아슬아지는 별빛에 추겨 보는가// 먼 追憶들이 얼어붙은 겨울의 湖水처럼/ 꺾적어리는 바다의 狂熱에/ 갈기갈기 찢기운 憤怒를 달래이다/ 싸늘하니 굳어버린 冥想이 슬프기만 한 山!// 원밤 허전한 마음에 시달린/ 저 탐스럽게 들어선 앞가슴에는/ 어쩔 수 없는 宿命의 重量에/ 싸늘하여 버린 體溫의 咀呪스런 沈默과/ 原聲의 메아리가 처절히 무서리에 영그른 傳說이며-// 가도 가도 물굽이에 채이는 / 내 마음의 안쓰러움…….

- 김종훈 「한라산」

제주섬의 숙명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 작품이다. ‘꺾적어리는 바다의 狂熱에/ 갈기갈기 찢기운 憤怒를 달래이다/ 싸늘하니 굳어버린 冥想이 슬프기만 한 山!’에서는 외세의 무수한 침탈을 감내해내야 했던 제주섬의 아픈 역사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 험난한 역사의 여정에도 탐스러운 앞가슴에 처절하게 여몰어간 전설을 간직한 것이 한라산이라는 것이다.

27) 문덕수는 1957년 11월 23일부터 1961년 6월 6일까지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위의 책, 283쪽.

28) 김영화는 제주대가 제주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952년 5월 제주대학이 개교를 보았다. 이 대학은 개교 당시 국문학과와 영문학과를 두었다. 따라서 문학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 대학에 입학하여 문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대학에는 박목월, 김영삼, 문덕수 등 시인들이 강의를 맡으면서 문학공부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훗날 이 두 학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문단에 등단했고, 문단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자층으로 남아 문학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졸업생들이 교단에 서서 후진 양성을 하는 한편 문학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했다.”(『변방인의 세계』, 24쪽.)

그것은 역사와 전설만이 아니라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도가도 끝없을 것 같은 제주섬의 숙명을 감지한 화자의 가슴은 저려울 따름이다.

네 앞에 서면 나는 눈이 멀어지고/ 네 곁에 서면 나는 귀가 먹어간다/
 (...) / 혼란의 손길이나/ 질서의 맥박이나/ 너는 일체의 의미를 자른다/ 너
 는 일체의 가치를 건워버린다/ 살의와 탐욕을 부풀어 돋구는/ 내 오직 하나
 금반지는 녹이 쓸고/ 王冠도 씌어서 툭 떨어져/ 울창한 사상의 밀림도 마르
 고/ 피의 계절 속에, 풍성한 文明의 과일도 네 요기를 채운데도 모자라/ 신
 앙과 기도 앞에 미소만 짓고/ 뿌리를 끊어 먹혀 흔들리는 歷史여/ 祖國이
 여/ 저, 켈하니 뚫린 수천의 눈초리/ 저, 찻찻이 닳아서 암흑의 절벽/ 저,
 기지개를 켜는 무위의 몸동아리들/ (...) / 아니다/ 아니다/ 감돌고 휘도는
 이 否定의 瀑布/ 뒤섞이는 응답과 회의의 洪水// 네 앞에 서면 나는 병어리
 가 된다/ 네 앞에 서면 나는 숨이 가쁘다.

- 문덕수 「침묵·5」

조국의 혼란상에 대한 답답함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1950년대 후반 자유당 정권 말기의 혼란 상황을 섬에서 지켜보면서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을 어찌할 수 없어 하는 시인의 처지가 읽혀진다. 그저 침묵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국의 정치현실이 더욱 갑갑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어찌면 유배인의 심정과 비슷한 면도 있다. 그러한 유배인 의식은 문덕수 시인이 제주 출신이 아니라 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53년 6월에 나온 『흑산호』가 제주도 최초의 문학동인지라면, 『비자림』은 시 동인지로서는 제주도 최초의 것이다. 동인 참여자들을 보면, 『흑산호』가 피난 문인 중심이었던 데 비해 『비자림』은 토박이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1회 발간에 그쳤으나 후자의 경우 2회에 걸쳐 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비자림』은 특히 대학의 문학전공자들이 결성한 동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문주란』

1959년 6월 17일 시 동인지 『문주란(文珠蘭)』 제1집이 나왔다. 이후 지속적으로 출간되지 못해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었다. 동인들은 북제주군 구좌읍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는데(출판비도 구좌읍 월정리 출신 우동섭이 대었다.), 논산에서 활동하던 김대현을 비롯해서 이치근(이근), 부택훈, 정인수, 오용수 등 다섯이 그들이다. 이 동인지에 김대현의 「청아(淸芽)」, 이치근의 「별에게」·「소녀에게」, 부택훈의 「섬, 돌 사이」·「병어리 죄업(罪業)」, 오용수의 「고독」·「나무(裸木)의 시」, 정인수의 「당신」·「그림자」 등 9편의 시가 발표되었다.²⁹⁾

이끼 오르는 푸른 섬, 돌 사이, 여기 피나게 구슬픈 품뿔이 밤을 새우고
간다/ 섬은 오랜 섬 아까시아 나무 그늘에/ 물새는 오래 살아온 가지 사이
로 바람이/ 두 잎을 달래어 바다로 띄워 보내는 變

- 부택훈 「섬, 돌 사이」 12연

9편의 작품 중에서 그나마 향토적 요소가 있는 시로는 위의 것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위의 시에 나오는 섬이나 바다라는 공간은 막연한 대상일 뿐이다. 물새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제주의 것이든 다른 곳의 것이든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문주란』 동인들은 단 한 번의 책 출간 외에 별다른 활동을 함께 하거나 어떤 대외적인 행사를 가진 것 같지 않다. 동향인들의 작품을 모아 소박한 작품집을 출간한 것일 뿐, 동인으로서의 뚜렷한 이념적 지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은 이 동인지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한다.

29) 「제주문학 20년 - 문주란」, 『제주신문』 1971년 1월 25일자: 「제주문학 20년」, 『제주문학』 제2호(한국문협제주도지부, 1973), 154~155쪽. 필자는 아직까지 『문주란』을 직접 보지 못했다. 일부 동인과 선행 연구자들에게 문의해 보았으나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4) 『시작업』

『시작업(詩作業)』 창간호(제1집)가 나온 것은 1959년 10월 25일이었다. 우생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은 ‘부정기간행물’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표지를 포함하여 100쪽으로 이루어졌다. 제2집은 1960년 8월 20일자로 나왔으며 114쪽 분량이다.³⁰⁾ 양순필이 발행인과 주간을, 김종원과 이치근(이근)이 편집을 각각 맡았다. ‘창간사’가 따로 없는 대신, 제1집의 「편집후기」를 통해 이들이 다음과 같이 창간의 취지를 천명한 점이 주목된다.

우리가 이 冊子를 만들겠다는 情熱과 意慾은 靑山 문학이 갖는 孤獨을 즐겨서가 아니라 오로지 現下文壇의 中央集權制와 그 派別을 止揚하기 위한 二十代의 抗議의 姿勢 그것에 있고 現代文學이 갖는 人間救濟의 使命을 完遂하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二十世紀文學은 民主主義文學이어야 할 때 우리 現代文學은 아직도 中央集權制란 테두리에서 모든 既成의 思想이나 知識에 依存하므로써 自身의 人間的 實體를 喪失하고 있는 지 오래다. 이런 現實에서도 끈질기게 우리는 果敢히 實踐의 으로 무엇인가 創造하고 싶었고 作業을 完遂하고 싶었던 것이다.(98쪽)

한국문단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파벌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20대 청년으로서 항의의 자세를 가지고 창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제와 파벌의식은 문학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문학’ 동인을 소개한 점(제1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작문학’은 전라남도 출신의 윤삼하·권일송·정규남·권영례 등 주로 20대 신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학동인으로, 동인지를 2집까지 내었음을 밝히고 있다. “추천제를 반대하거나 씨클운동을 중시하는 지방인으로 중앙집권에 대한 항의로서 나타난 것”으로 여기면서 “중앙집권을 지양하는 하나의 탑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우리고

30) 물론 제2집의 발간 시기는 앞에서 규정한 전란 후 시기에서 벗어나지만, 『시작업』 간행이 더 지속되지 않고 2집으로 끝나버렸다는 점에서 함께 다루었다.

있”(59쪽)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2집의 「편집후기」에는 “집필자 중에 무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문학은 유명무명의 그 여하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작품의 역량 여하에 있다. 때문에 선입관을 삼가야 할 것이다.”(108쪽)라는 언급이 있다. 모두 중앙집권의 폐해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벌 위주로 흘러가는 문단의 행태나 서울 중심 문학 판의 문제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매우 의미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은 지역에서 문예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유명문인들의 작품들을 게재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 삶을 바탕으로 삼는 가운데 문학적 실천이 전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시작업』 동인들은 거기까지는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작품들의 면모를 보면 지역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김종훈의 「한라산-哀歌」 정도가 예외일 것이다.

〈제1집〉

시론: 김춘수 「Ars Poetica에 대한 태도의 전개」, 문덕수 「한국 현대시의 이미지」, 김우종 「정형시의 현대적 의미」, 양순필 「현대시의 철학의 문제」, 고석규 「현대시의 형이상학」(유고).

시: 유치환 「단장」, 설창수 「대원사 구중탑」, 김관식 「민족의 소리」, 허연 「태산목」, 박봉우 「가로의 연인」, 조영서 「미소」, 김남조 「가을의 기도」, 신동문 「카멜레온 단장」, 권일송 「흑태양」, 허유 「명동 입구에서부터」, 황운현 「우재」, 이재하 「소곡」, 유강한 「이 세상을 네가 친구로 삼으면」, 정규남 「탑」, 조효송 「가을비」, 김대현 「관음지장」, 김재희 「별과 꽃밭」, 박정희 「울타리」, 최취림 「부챗살」, 양중해 「童泣」, 곡천 「푸르페라 소년」, 이광석 「바람의 층계」, 이치근 「거울에게」, 강통원 「팔월」, 김종훈 「환절에」, 김종원 「지붕 밑」

김현승 「이십대의 나의 詩作」

신간 평: 문덕수 「서정주 '시문학개론」, 양순필 「조연현 '문학적 인생론」

시동인지 순례(1): 김종원 「'창작문학' 편」

재언: 이근 「문학상인이 되지 말라」

「편집후기」

<제2집>

권두언 「사월혁명과 시인의 반성」

시론: 전봉건 「주지적 서정의 물결」, 원형갑 「시에 있어서의 언어」, 장백일 「시인의 현실참여」, 양순필 「한국 현대시의 전망」, 박철휘 「시 이론의 기초 작업」

제주도민요연구: 김영돈 「처절한 숙명의 표백」, 현용준 「제주민요의 속담적 표현」

시: 조지훈 「이 사람을 보라」, 이원섭 「단심」, 정한모 「한 마리 새의」, 신기선 「노을」, 이성교 「아름가」, 최해운 「가혹한 자의 가슴에」, 김대현 「미소」, 박희선 「백묘초·점음」, 정공채 「문득 빛나는 아픈 회상」, 김선현 「국화」, 심재언 「일기」, 송혁 「거미의 엽서」, 박경용 「후조」, 백시걸 「심인」, 권용태 「푸른 병실」, 민영 「섬나리꽃」, 강태열 「속·음악」, 김재원 「티룸에서의 미소」, 이동연 「풍경화 五」, 김종훈 「한라산정」, 최휘립 「화병」, 이치근 「이발관에서」

여류시 팔인집: 추은희 「아가에게」, 강계순 「생성」, 홍유경 「소라」, 왕수영 「왜곡의 선율」, 김옥교 「바람 부는 별」, 박현령 「가을 산 찾아서」, 김인숙 「조가비」, 고선자 「옷을 벗으며 내리는 비」

번역시: 윌리엄 엠프슨 작/ 박희진 진 역 「잃어버린 날자」

김광림 「詩作에의 초대장」, 문덕수 「이십대의 나의 詩作」

상호 詩評: 유경환 「곡예사를 따라가는 행렬에서」, 허유 「도회적인 세련감」, 박정희 「가슴바닥에서의 음성」, 김혜숙 「눈섭에의 신앙」

「시단 주변」, 「편집 후기」

목차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작업』은 시와 시론을 위주로 편집된 되어 있다. 제1집은 현대시론을 다양한 필자를 동원해 조명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시전문지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제2집은 조금 달라지는데, 「사월혁명과 시인의 반성」이라는 권두언과, 조지훈의 시 「이 사람을 보라-혁명 국회에 부치는 글」을 수록한 점이 4·19혁명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기획이며, 제주도민요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어 있음도 주목된다. 필자로는 도외 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거주하던 필자는 제1집은 문덕수, 양순필, 김대현, 양중해, 이치근, 김종훈, 강통원, 김종

원 등이며, 제2집의 경우 양순필, 박철희, 김영돈, 현용준, 김대현, 김종훈, 이치근, 문덕수 등이다. 강통원의 시를 살펴보자.

슬취한 季節, 징그러운 햇살 아래 俠竹桃는 불붙고, 창가마다 거리마다 근
지러운 빛깔들, 興奮하여 춤추는 여기는 '빠커스'의 神話다// '아플로'의 후
예들은 지난달 그믐쯤에 山寺로 떠나가고, 어지러운 日常을 趣味하는 사람
은 모오두들 남아서 市井에 沙場에 눈부신 무지개로 피어오른다// (후략)
-「팔월」

김영화는 강통원의 등단 이전 동인 활동 시절의 시에 대해 “강통원의 시를 지배하는 요소는 서양지향적이고, 모더니즘적이다. 몸과 현실은 극동의 작은 섬 제주도에 있는데, 생각은 늘 서양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만큼 독자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워 버릴 수 없다.”³¹⁾고 밝힌 적이 있다. 위에 인용한 「팔월」에서도 마찬가지다. '빠커스, 아플로, 크리쓰머스, 키다이론'으로 8월을 그려낸다. 이국정조, 서구취향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어쩌면 『시작업』의 주제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더니즘적 성향에 젖어있거나 적어도 지역의 현실과 정서를 창작의 주된 동력으로 삼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탈중앙의 논리가 그다지 의미를 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전개된 제주문학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김영화, 앞의 책, 187쪽.

첫째, 1964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전란이 마무리되자 제주사회는 고립을 극복하며 정치·행정·교통·통신·문화·교육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보였다. 특히 대학 설립은 문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피난문인들은 대부분 떠나갔지만 제주대학 개교와 더불어 국문학과 등이 설립됨에 따라 문학을 강의하는 문인들이 다시 제주를 찾게 되었고, 제주의 문학 청년들과 내도 문인들이 제주문학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문총제주지부의 기관지로 1957년 6월 창간된 『제주문화』는 제주도 최초의 문화단체 기관지였으나,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었다. 제주도의 언어·신화·민요·풍속 등에 대한 글들과 함께 문학작품이 적잖이 실려 있다. 문총제주지부의 기관지인데도 문학작품을 비교적 많이 수록한 것은 문학분과 회원 수가 다른 분야를 압도했고 주도자들이 주로 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문화』에 실린 문학작품의 양상들을 보면, 전쟁의 상흔과 관련이 있거나(이인석 시 「폐허에 서서」, 유정 시 「최후의 꽃」, 조명철 소설 「말복 날」), 제주적인 것을 소재로 삼은 작품(김용호 시 「어느 섬에서」, 홍정표 시 「옹중석」)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문화』가 지속적으로 간행되지 못한 것은 그 발간을 주도한 김영삼 시인이 제주를 떠난 데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문화예술단체 기관지 간행이 특정인의 행보에 따라 좌우되었음은 아직 제주도의 문화예술 기반이 미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는 4·3의 피해와 상관이 있다.

셋째, 『비자림』은 1958년 6월에 창간되어, 같은 해 9월에 제2집까지 간행된 시 동인지다. 제1집에 문덕수의 「내일」, 양중해의 「구름」, 강통원의 「구고습상」, 강시택의 「바위」·「정야」, 김종훈의 「한라산」·「꽃망울 맺는 밤」 등 7편이 발표되었고, 제2집에는 유치환의 「광음」, 문덕수의 「침묵(5)」, 양중해의 「천상」, 강통원의 「입맞춤」, 강시택의 「새벽에」, 김종훈의 「메아리」 등 6편의 시가 게재되었다. 『비자림』 동인은 문덕수·양중해·강통원·강시택·김종훈 등 5인이었는데, 시단의 선배와 신인들이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국문학과를 중심으로 결성되었

다. 김종훈의 「한라산」에는 제주섬의 숙명적인 역사가 담겨 있으며, 제2집에 실린 문덕수의 「침묵·5」는 조국의 혼란상에 대한 답답함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주목된다. 『비자림』은 제주도 최초의 시 동인지이면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제주토박이들이 그 주체로 참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넷째, 1959년 6월 시 동인지 『문주란』 제1집이 나왔으나, 창간호가 중간호가 되었다. 동인들은 논산에서 활동하던 김대현을 비롯해서 이치근, 부택훈, 정인수, 오용수 등 북제주군 구좌읍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다. 이 동인지에 김대현의 「청아」, 이치근의 「별에게」·「소녀에게」, 부택훈의 「섬, 돌 사이」·「벵어리 죄업」, 오용수의 「고독」·「나목의 시」, 정인수의 「당신」·「그림자」 등 9편의 시가 발표되었다. 『문주란』은 동향인들의 작품을 모아 소박한 작품집을 출간한 것일 뿐, 참가자들이 동인으로서의 뚜렷한 이념적 지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시작업』은 1959년 10월 창간하고 1960년 8월 제2집을 낸 잡지로, 시와 시론을 위주로 편집되어 있다. 양순필이 발행인과 주간을, 김종원과 이치근이 편집을 각각 맡았다. 제1집은 현대시론을 다양한 필자를 동원해 조명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시전문지와 차별성이 없다. 제2집은 조지훈의 시 등 4·19혁명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내용을 수록하는가 하면, 제주도민요에 대한 관심도 표출되어 있다는 면에서 조금 다르다. 필자로는 도외 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 거주하던 필자는 문덕수, 김대현, 양중해, 김종훈, 강동원, 박철희, 김영돈, 현용준 등이다. 한국문단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파벌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20대 청년으로서 항의의 자세를 가지고 창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되지만, 작품들의 면모를 보면 지역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 즉 이들이 말하는 탈중앙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했기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전란 후의 제주문학은 자생능력을 키우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직전 시기인 전란기의 제주문학은 계몽목 등 피난문인들이 중심

이 되어 제주문단을 이끌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김영삼·문덕수 같은 강의차 내도한 문인들과 함께 제주의 문학청년과 문학전공자들이 주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4·3으로 인해 수많은 제주의 인재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문학적 정열을 불태워간 지역의 젊은이들에 의해 제주문학이 자생능력을 길러가기에 이르렀다는 면에서, 전란 후의 제주문학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문학에서 지역문학으로서 의미가 부각되는 작품이나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의 문학에서도 그랬듯이 제주의 경우에도 서구취향적인 성향에 젖어있거나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문학계의 주된 경향이였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현실과 정서를 창작과 비평의 주된 동력으로 삼지 않은 채 문학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4·3의 참화로 인한 피해의식, 당시 한국문단의 전반적인 풍토 등이 참다운 지역문학의 뿌리내림을 더디게 했다고 본다.